

어린이 책꽂이

▲중세의 파수꾼 성=성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성의 역사를 소개하고 성의 구조와 건축양식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성에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소소한 일상들을 보여준다. (시공주니어·1만3천원)

▲심술쟁이 왕게 마가=필리핀 섬이 만들어진 유래와 여러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수록돼 있다. 필리핀의 자연과 전통, 관습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상상박물관·9천원)

▲어린이를 위한 1250°C 최고의 나라=베스트 셀러 '1250°C 최고의 나라'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발견하는 지혜 등을 담고 있다. (주니어 중앙·8천500원)

▲고요한 바다=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에밀리오와 이웃에 사는 하비에르 아저씨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렸다. 에밀리오가 아저씨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세움·9천800원)

▲코코사넬=패션 브랜드 '샤넬'을 탄생시킨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일대기를 다룬 위인전.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서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시대를 앞서간 샤넬의 삶이 감동을 준다. (다섯수레·9천원)

그림으로 본 음식의 문화사 케네스 벤디너 지음

그림속 작은 음식 하나도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고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소박한 유럽 농민들의 식사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미술사적으로 명작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1800년대 유럽의 생활상을 엿보게하는 사료로서 주목받기도 한다. 인물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시고 있는 장면은 당시 식단의 변화를 투영한 것으로 커피가 전통적인

음료인 '꿀술'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그룹의 비자금 문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작가 로이리히텐슈타인의 '주방 스토브'와 앤디 워홀의 '200개의 수프 통조림'은 식품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대량 마케팅의 공포를 경고하는 작품이다.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의 예술사 교수인 케네스 벤디너는 '그림으로 본 음식의 문화사'에서 '식사



삶을 묘사한 그림에는 당시 시대상과 문화를 보여주는 인물들 비롯해 음식과 복식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유럽 서민들의 식단을 그린 고흐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

와 '예술'을 씨실과 날실로 엮어 각 시대의 생활 문화사를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다.

그림 속 작은 음식 하나에도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브리첸, 램브란트, 마네, 앤디 워홀 등의 유명작가의 작품을 통해 서구 먹거리 문화의 변천사와 생활상을 분석한다.

클로드 모네의 '쇠고기가 있는 정물'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의 식단을 스케치한 것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쇠고기와 향료인 마늘, 맥주잔은 당시 하층민의 음식을 사진처럼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 또 맥주가 서민들의 음료가 됐다는 사실도 암시한다.

웰빙식을 추천하는 그림도 있다.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바다 가재가 있는 정물'은 19세기의 사들이 몸에 좋다고 추천했던 음식이 등장한다. 화폭에 그려진 바다가재와 새, 토끼 등은 전통적인 보양식이다.

18세기 화가였던 올리비에의 '콩티 공이 성전에서 베푼 만찬'은 강렬했던 귀족의 권위가 서서히 무너져나가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귀족을 상징하는 '상석(上席)'을 부각하는 전형적인 그림과 달리 올리비에의 그림에서는 콩티공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지위 고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당시 귀족들이 권력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인 쿠스타프 쿠르베는 서민적인 작품을 많이 그렸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광택 라투르가 중산층 식탁을 묘사하면서 그린 사과가 탐스러운 반면, 쿠르베가 그린 사과는 서민들이 실제로 접하는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모양이다.

저자는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각 장을 구분, 음식의 수집과 판매, 음식의 준비, 식사, 음식의 상징 등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예담·1만8천원)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한승원 '추사'

오랫동안 교유한 작가들 사이에는 동업자로서 독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믿음이 있다. 그 작가만이 갖는 천품(天稟)과 색깔을 늘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는 그런 소재를 잘 다룰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 그런 작가에게 어떤 소재를 권유하기도 하고 아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름 태연 내가 최인호 작가에게 10여 권의 불교서적을 선정해 주려는 '길 없는 길'을 집필하도록 한 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장편소설 '추사'(열림원)를 발간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 한승원 작가도 같은 경우이다. 나는 한승원 작가를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존경하면서 지켜봐 온 후배 작가이다. 그런 이유로 선생이 지금은 무슨 소재를 잘 다룰 것이라는 직감이 있다. 서울에서 나를 만나러 온 출판사 사장이 편집자들은 내 얘기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한승원 선생의 근황까지 듣고 가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온 작품이 바로 소설 '추사'와 '추사'이다.

며칠 전에도 선생의 독서당인 해산토굴에 들러 차를 마신 적이 있다. 최근에 내가 발간한 장편소설 '하늘의 도'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우송할 수도 있었지만 편지 무렵엔 느낌이 들어 책을 들고 직접 찾아 갔던 것이다. 집필실은 물론이고 거실까지 소설 자료들과 구상한 메모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다. 소설 '추사'를 집필할 창작의 산실을 실감케 하는 치열한 공간이었다.

선생은 추사 김정희의 삶을 오랫동안 흠모해 왔지만 집필 기간은 2

'신필' 뒤에 가려진 삶·예술



년이었다고 말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추사 생각, 산책을 하면서도 여행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추사 생각을 했다. 세상의 소리를 추사의 귀로 들으면서 추사의 머리로 사유하려 했다." 그 결과 작가는 '추사는 권문세도가 출신으로 오만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의 천재로 자만하다 세상의 질시를 받아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과천에서 말년을 고독하게 보낸 뒤 죽었다'는 우리들의 통념을 바꾸어준다. 오만한 천재가 아니라 조선 말기의 순종과 철종조의 왕권이 무너져버린 혼란스럽고 광기 어렸던 시대에 자신을 예술혼의 자존심으로 지켜내다 죽은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신필(神筆)을 기호 삼아 추사 김정희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김정희가 왜 김정희인가'를 '신필이 왜 신필인가'로 소설 여기저기에 간단없이 '신필은 하늘이 점지해 주지 않는다. 아흔아홉 칸까지는 그 사람의 부단한 분투와 도전 같은 정진과 공력으로 이룰 수 있지만, 단 한 칸은 신성이 작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추사가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는 구성으로 전개돼 다소 어두운 느낌도 드는데, 작가와 추사가 사건이 달라질 때마다 큰 씨름을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순(尾順)의 경지에 든 작가가 때로는 추사가 되기도 하고, 사랑스런 첩과 서얼자식을 둔 한승원 아버지로서 추사의 한이 작가의 한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아나 들면 원숙함을 무기로 하여 문장이 만연체가 되고 문체가 사변적이 되는데, 한승원 작가의 소설 '추사'는 청년처럼 풋풋하고 문장이 단문이면서 양마(良馬)가 바람을 가르며 달리듯 상쾌하고 영성적이다. 이순의 작가에게 어디에서 이런 힘이 솟구쳐 흘러 넘치는지 후배작가로서 참으로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정찬주 <소설가>



공자·정약용 등 동아시아 유학자 조명

강의실에 찾아온 ... 백민정 지음

정약용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백민정 연세대학교학원원의 전임연구원이 공자에서 정약용까지 13명의 대표 유학자들을 통해 동아시아 사상의 흐름을 짚어냈다.

공자와 맹자, 이황, 이이는 물론 일본 유학자 이토 진사이와 오규소라이 등도 다뤘다. 저자는 이들 13명의 유학자가 유학 사상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 유학자들을 다룸으로써 한국·중국·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유학 사상의 특징과 관계를 파악했다.

딱딱한 주제를 강의식 문체로 부드럽게 한 것이 책의 특징. 강의가 끝나는 각 장의 마지막에는 소개했던 유학자와 다른 입장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설명해준다. 최근 서구 세계에 의해 주목받고 있는 유학(儒學)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제격이다. (사계절·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명품 구두 신고 산책, 발랄한 현대인

마늘로 ... 백영옥 지음

'마늘로 불러니 신고 산책하기'라는 제목의 이 책, 우선 제목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마늘로 불러니'는 스페인 출신 유명 신발 디자이너의 이름이자 그가 만든 신발의 브랜드명으로 여자 구두의 뾰족한 굽과 썩시한 디자인, 매혹적인 컬러가 특징이다. 이렇게 불려왔던 생김 구두를 신고 산책을 하더니..

지난해 단편 '고양이 산티'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은 소설가 백영옥씨가 조선일보에 1년3개월 동안 '백영옥의 트렌드쇼'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모은 책이다.

다이어트, 성형수술, 패션, 영화, 드라마, 미술 등 일상에 쉽게 마주치는 주제로 꾸며졌다. "술 길 가듯 바람을 사랑하지만, 백화점의 화려한 상들리에에도 쉽게 도취"된다는 저자는 불편한 명품 구두를 신고 산책하는 것을 '즐거움 놀이'로 여겨듯 생기발랄한 문체로 '요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예담·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inner's Front, and Jeonil Cinema. Includes movie titles like 'I Am Legend', 'The Host', and 'The King of Masks'.